

연동형 비례 첫 도입 호남 총선판 '출렁' 오늘 공수처법 처리... 사법제도 큰 변화



민주당 "검찰개혁" 여야는 문재인 대통령의 '1호 공약'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 처리를 하루 앞둔 29일 극한 대치를 이어갔다. 민주당은 '4+1' 공조를 통해 30일 새 임시국회 본회의를 열고 표결에 들어갈 예정이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29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주민 최고위원, 이 원내대표, 박찬대 원내대변인.

선거연령 19세→18세 하향 ... 순천시 선거구 분구 축약 4+1협업체·한국당 공수처법 표결 앞두고 극한 대치

우리나라 정치사상 처음으로 내년 총선에 준연동형 비례대표 제도가 도입되며, 만 18세부터 투표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또 30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도 통과가 예상된다. <관련기사 3면> 국회는 지난 27일 자유한국당이 강력히 반발하는 가운데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통합파·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가 제출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을 상정했다. 공직선거법은 이날 본회의 개의 직후인 오후 5시 46분에 재석 167명, 찬성 156명, 반대 10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문희상 의장은 또 이날 이후 7시 22분 공수처법도 상정했다.

이날 통과된 선거법 개정안은 지역구 253석·비례대표 47석 규모인 현재의 국회의원 의석구조를 유지하되 비례대표 의석 중 30석에 연동형 비례대표제(연동률 50%)를 도입하는 내용이다. 연동형 비례대표 30석은 각 당의 지역구 당선자 수와 정당 지지율 등에 따라 배분되며 나머지 17석은 기존대로 정당 득표율에 따라 나뉜다.

특히, 선거구 획정의 최종 결정이 남아있지만 순천시의 분구 가능성도 높아 광주·전남지역 의석이 18석에서 19석으로 1석 증가하느냐 여부를 두고 지역 정치권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선거법 개정안에는 또 선거 연령을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도 들어있다.

군소 정당에 유리한 것으로 평가되는 준연동형 비례대표 제도가 실시되면 내년

총선에서 국회 의석 구도가 근본적으로 달라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군소 정당이 난립하면서 정국 혼란이 극심해질 것만도 내 놓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선거제도 면에서 큰 변화지만, 지난 4월 30일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선거법 원안에 비해 크게 후퇴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원안은 현행 지역구 의석(253석)을 28석 줄이고 비례대표 의석을 47석에서 75석으로 늘린 것이다. 여기에 전국 단위 정당 득표율로 연동률 50%를 적용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구현하도록 했다. 하지만 4+1 협의체는 원안대로 하면 본회의 통과가 어렵다고 보고 지난 23일 수정안을 다시 제출했다.

이날 본회의에 상정된 공수처법안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신설하는 공수처를 신설하는 내용이다. 구체적으로 공수처의 수사 대상은 대통령, 국회의원, 대법원장 및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 국무총리와 국무총리 비서실

정무직 공무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무직 공무원, 판사 및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등이며 이 중 경찰, 검사, 판사에 대해서는 직접 기소할 수 있다. 공수처장은 추천위의 위원 7명 중 6명의 찬성으로 2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그중 1명을 택하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된다.

한국당은 선거법 개정안 통과 저지를 위해 이날 문 의장의 의장직 진임을 문으로 막는 등 강력 저지를 나섰지만 표결을 막지는 못했다. 한국당은 '비례정당'에 창당을 통해 연동형 비례대표 제도 도입 효과를 무력화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민주당은 30일 오전 10시에 새 임시국회 본회의의 소집요구서를 제출한 상태로 공수처 법안은 이날 표결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어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된 검찰청법 개정안이 상정되고 여야는 필리버스터 대기 3라운드에 들어갈 예정이다.

5·18 진상규명조사위원장에 송선태

첫 전원의회...부위원장 안종철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 조사위원회 위원장으로 송선태씨가 선출됐다.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 조사위원회는 지난 27일 서울 중구 나라키움저도빌딩에서 첫 전원위원회 회의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 이날엔 국무총리는 30일 국무총리실에서 3명의 상임위원(안종철-송선태-이종협)에 대한 임명장을 수여한다. 5·18진상조사위는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국회의장 추천 1명과 더불어민주당(4명), 자유한국당(3명), 바른미래당(1명)이 추천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6일 이들 9명의 위원에 대한 임명장을 재가했다.

조사위원인 서애련 변호사가 임시의장을 맡은 이날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송선태 위원을 위원장, 국회의장이 추천한 안종철 위원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으로 각각 선출했다.

임명장 수여 전 첫 전원위원회가 열린 것을 두고 진상조사위의 연내 출범을 희망하는 문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5·18진상조사위 출



송선태 위원장

범은 그간 위원 구성 등을 둘러싸고 청와대와 자유한국당이 이견을 보이면서 지연됐다. 5·18진상조사위는 1980년 5월 당시 군에 의해 반인권적으로 자행된 민간인 학살, 헌정질서 파괴행위 등 위법 또는 현저히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해 발생한 사망·상해·실종사건 그 밖에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진실을 규명하는 임무를 맡고 있다. 활동기간은 2년으로 1년 연장할 수 있다. 조사위는 사무처 직원을 포함해 52명으로 구성되며, 파견 공무원 15명을 제외한 34명은 별정직 공무원으로 신규 채용한다. 예산 범위에서 전문위원을 구성하며, 내년 2월까지 직원 채용을 마치고 본격적으로 활동에 들어간다는 구상을 갖고 있다. 한편 5·18진상조사위는 조사위의 근거법률인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가운데 상임위원의 역할과 기능, 임기 등에 관해 미비한 점이 있다고 보고, 21대 국회에 개정을 건의하기로 결정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광주 첫 '경제자유구역' 지정 눈 앞

AI·車·에너지 미래 먹거리 산업 청신호

광주 첫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눈앞으로 다가오면서 인공지능(AI)·자동차·에너지 등 광주시의 미래 먹거리 산업 육성과 투자유치에 청신호가 켜졌다. <관련기사 5면> 29일 광주시와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산업부는 지난 27일 경제자유구역위원회 회의를 열고 광주 4개 지구를 포함한 전국 3개 지역 8개 단위지구를 경제자유구역 지정 후보 지역으로 선정했다.

광주 예비 지정지는 ▲빛그린 국가산단 1.847㎢(56만평·광산구) 미래형 자동차 산업 지구 ▲에너지 밸리 일산산단 0.932㎢(28만평·남구) 스마트에너지 산업 I 지구 ▲도시 첨단 국가산단 0.486㎢(15만평·남구) 스마트에너지 산업 II 지구 ▲첨단 3지구 1.106㎢(33만평·북·광산구) AI 융복합지구이다.

산업부는 중앙 부처 협의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 중 경제자유구역을 공식 지정할 예정이다.

경제자유구역은 투자 조세감면, 규제 완화 등 투자 기업에 유리한 경영 환경과 생활 여건을 조성해 투자 유치를 촉진하려고 정부가 지원하는 특별 경제구역이다. 이용섭 광주시장 1호 공약으로 투자유치 활성화와 지역경제 발전을 견인하기 위해 광주시가 조성을 추진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전조등만 차·전동휠 '도로 위 공포' ▶6면
2019 광주·전남 체육 결산 ▶20면

사랑과 감사의 65년
민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19]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www.kwangshin.ac.kr

HNT 하나투어

무안공항에서 떠나는 여행

여행의 편안함이 달라집니다.

동남아/대만/남태평양
중국

갈

Savepack PGPF40_A
광4일 홀리데이인호텔
840,000원-

대만

Savepack AVPF13_0
다양·호이안 4일
599,000원-

보라카이

Savepack APFF10_1
보라카이 4일, 5일 일일리조트
649,000원-

세부

Savepack APFF01_A
세부 5일 일일리조트
499,000원-

하이난

Savepack CIPF83_N
하이난 5일, 6일 특급호텔
500,000원-

장가계

Savepack CIPF01_1/2
장가계 4일, 5일
599,000원-

방콕

Savepack AAFP10_0
방콕·피타야 5일, 6일
556,000원-

코타키나발루

Savepack AMFF03_3
코타키나발루 5일, 6일
595,000원-

하노이

Savepack AVPF10_A
하노이/하롱베이 5일, 6일
1,050,000원-

치앙마이

Savepack AOPF01_A
치앙마이/치앙라이 5일, 6일
1,150,000원-

강오스

Savepack ALPF01_A
라오스 5일, 6일
1,050,000원-

상해

Savepack CCPF01_2
상해·추가각 4일, 5일
329,000원-

상해/황산

Savepack CCPF06_1
상해·황산 4일, 5일
579,000원-

※ 항공사 및 현지 사정에 따라 운항정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Fair Price | 안전결제 캠페인 | 단체맞춤여행 인증제

하나투어 프리미엄로드샵 광주충장점 062)228-1199

■ [여행상품 가격포함내역] 유류할증료, 공항이용료, 전정보험료, 관광진흥개발기금, 운송/숙박/식사요금, 여행보험료, 현지관광입장료 등 반드시 고객이 부담해야 하는 모든 경비 포함된, 개별여행상품은 미적용. ■ [유류할증료] 유류할증료는 여행상품 가격에 포함되어 있으며, 발원일, 환율 등에 따라 변동 가능함. ■ [가이드경비] 가이드경비는 상품에 따라 여행상품가격에 포함 또는 불포함할 수 있으며 불포함시 현지에서 별도로 경비를 지불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일정표 및 홈페이지 www.hanatour.com 참조) ■ [도착비] 도착비자는 필요로 하는 일부 지역의 경우 도착비자요금은 상품가에 불포함합니다. ■ [선택경비] 현지에서 고객의 선택에 따라 자유롭게 선택관광에 참여가능하며 그에 따른 선택경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선택관광 미참여로 인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일정표 및 홈페이지 www.hanatour.com 참조) ■ [메니점] 소비자의 자율적 선택사항으로 지불 여부에 따른 불이익은 없습니다. ■ [여행목적지 여행경보단위] 여행목적지의 여행경보단위는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www.0404.go.kr)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부득이한 사정에 의하여 여행 일정 변경되는 경우 여행자의 사전동의를 받습니다. ■ 관광사업자 등록번호 제1993-000006호 (충무구청) 서울시 종로구 인사동5길 41 하나투어 빌딩 (주)하나투어 ■ 최소 출발인원 10명/호텔 2급호텔 이상 2인1실/교동편 항공/버스/해리상품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고객센터/문의전화 Tel. 1577-1233/ARS 안내번호 0번 ■ 영업 보증보험 22억 1천만원 가입